

사 설

모범 선거여야 하는 이유

11월 15일로 예정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모든 불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거기에는 종단을 위해 모르고 할 위험성까지 있는 끊임없는 분류를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종식시켜야 한다는 기대가 곁들여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어찌 한번의 선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그래든 이러한 큰 일을 계기로 수습의 가치를 잡지 않는다면 다음의 기회는 것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총회도 이런 고심 속에서 몇 번까지도 포괄한 징계자들에게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정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또 명실상부하게 시행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조치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더 이상의 분류는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으며, 조계종단의 완전한 무력화 내지 와해라는 비극적인 결말 속에서 똑같이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불교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선거가 정말로 여법하게 치러져 그간 실추되었던 불교의 위상을 만회시키고 다시 화합 승단의 본면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승단의 청정성과 화합이라는 것이 제일 명제에 되어야 한다. 제3차적인 입장에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양시양비론의 칼을 휘둘러 분쟁 당사자 양측을 모두 비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승단 구성원들은 바로 국민과 불자들의 냉소적인 비난이 바로 현 종단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무엇 보다 그러한 비난을 묵시시킬 커다란 화합의 모습을 보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혹 옥석을 가리지 않은 용서와 화해가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런 움직임이 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 욕이고 누가 돌인지는 종권을 염두에 두지 않는 큰 화해의 자세를 누가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다 같이 욕일 수 있는 길도 여기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해의 분류도 총무원장 선거가 발미가 되었으며, 이번 재선거의 소송들이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소송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이번 선거가 그런 악업을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가장 청정하고도 여법하게 치러져야만 한다. 계속되는 분류 승단의 움직임에 쏠려있는 모든 불자들, 나아가 모든 국민의 눈과 귀에 정말 스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모범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조그만 절차적 정의를 무시할 때 생기는 후유증을 철저히 경계하여, 다시는 세속법에 불교의 자율성이 침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야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할 것이기에, 이러한 당부가 쓸데없는 군더더기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너무도 수 없이 쓸데없는 노파심이 당연한 듯이 현실로 드러나곤 했던 것이 조계종단의 역사이다.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이제 불자들의 의식도 깨고 변화했다. 무조건 종권을 잡은 쪽을 따르지도 않을 것이며, 혹 이번 선거마저도 불미한 모습으로 막을 내린다면 완전히 등을 돌릴만큼 염증이 차 있다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불교의 사회화를 외쳐왔던 불교가, 사회적 기능은 커녕 자체 종단의 문제마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존재 이유를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러하기에 승단의 본래 명목인 청정성과 화합성 회복을 이번 총무원장 선거의 지상 명제로 삼아야 한다.

“군종특별교구 설치하자”

군포교 제도개선위 제안 “포교원 산하 독립적 공식기구로” 실무회의 거쳐 종회에 안전제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군포교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군포교 제도로는 불가능하며, 종단내의 공식기구로서 포교원의 감독과 통제 아래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구가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포교장 정성화 사무총장은 지난 8일 포교원 주최로 열린 ‘군포교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정연·포교원장) 1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군포교발전 전략을 위한 제안’에서 (가칭)군종특별교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장 사무총장이 제시한 새로운 군포교 기구는 포교원 산하의

독립적인 공식기구로, 각 종단에서 군종자원을 파송받아 교육하며 군종들의 임명 해임 등의 제반 신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군포교 정책 수립과 시행, 군포교 방안 연구, 군포교 제반 단체의 관리, 군종의 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게 된다.

구성은 현역 군종과 예비역 군종 중 수송 인원으로 하며, 군종의 대표는 현역이 아닌 비구승(총무원 부장급)으로 하되 군종총회에서 선출,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예비역 군법사는 군종특별교

구의 소임이나 군법당의 상임법사로 임명,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은 각종단의 분담금과 군법당의 분담금, 신도 후원금, 사업이익금으로 운용토록 한다는 게 장 사무총장의 제안이다.

군포교의 장기적 전망을 세우

기 위해 구성된 제도개선 특위는 장 사무총장의 이번 발제를 기초로 몇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올 정기총회나 내년 3월 종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군승요원 선발 28일까지 원서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과 육해공군군종단(단장 이희용)은 군종법사로서 군포교에 헌신할 2000년 총원대상 군승요원을 선발한다.

대상자는 조계종 스님으로서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후 2년 경과한 자 또는 4년제 일반대학(학사이상)을 졸업한 자,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정사

유에 해당되지 않는 임관당시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할 자로서 25~28일 원서 교부 및 접수, 29일 오후 2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이 치뤄진다. 문의 (02)749-8646

한편 군종단은 오는 21일 오후 동국대 정각원에서 올해 군승사관 후보생 고별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올해 군승사관 후보생으로 확정된 8명의 후보생이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정가총회 11월5일 개최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등)는 20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145회 정기중앙총회를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또 △종단 긴급연안 대책 △동국학원 이사 사퇴 촉구 결의 △동국학원 이사 추천동의 △내년도 중앙총무기관 예산 승인 △동국대 불교병원 건립타당성 조사 특위 구성 △승적제법 총합법 등 중법제·개정 △중앙총무기관 중정감사 및 중정감사 보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재원마련을 위한 토지처분 △동도사 교구행정 정상화 등 21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영산율원 재가자에 개방

파계사, 내년부터

내년부터 재가불자들도 계율강의를 들을 수 있다.

파계사 영산율원(율원장 철우)은 20일 제 3회 비구계본 특강 입제식을 봉행하고 내년부터는 재가불자들을 위한 재가 5계와 (법망경)에 수록된 48계등의 계율강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산율원은 불교중흥을 위해서 계율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 아래, 5계를 수지한 재가불자들이 1년에 2~3번 약 1주일 과정으로 하루 2~3시간씩 강의를 받

게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영산율원은 타종단 스님에게도 문호를 개방, 제 2회 특강 때 태고종수진스님이 수강한 것을 비롯 이번에도 태고종의 영운스님이 청강생으로 참여했다.

한편 2회 특강은 영산율원 율주 종진스님이 강의를 맡아 26일 회합했으며 해인율원장 혜능스님, 송광사율원장 지원스님등 30여명의 학인이 수강했다.

비구계본은 비구가 지켜야 할 250개의 이름과 특징을 수록해 놓은 것으로 영산율원은 작년부터 봄, 가을 비구계본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새스님 321명 탄생

조계종 총무원은 20회 구족계 수계신임을 11~17일 직지사에서 봉행하고 새 스님 321명을 배출했다. 수계자들은 17일 회합식에서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용맹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불교자주권 수호 서명운동 돌입

대구·부산등 전국 7개도시 순회

불교자주권수호 전국서명운동본부(본부장 백창기·박광서)는 20일 대구 푸른동산에서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유상종 동화사 신도회장 이상현 보현사신도회장 장동 70여 지역선생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대전 부산 광주 전주 청주 원주등 전국 7개지역에 지역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의 불자들은 조계종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불교계내부의 문제를 세속법에 의지하려는 악습의 관행을 끊고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종단운영이 되어야 불교자주권이 확립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역서명운동본부는 앞으로 주요사찰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상설 서명대를 설치하여 서명작업에 돌입하며 진적상 황에 따라 중간집계를 통한 불교의 자주적 결의를 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교자주권수호 전국서명운동본부는 40여 불교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실무를 맡고 있다. 현재 1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이 서명운동은 대외적으로 ‘불교의 자존을 회복하고, 대내적으로 사부대중 참여교단의 중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중법회,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통도사 '정화불사 완수' 전진법회

폭력종식 1백만명 서명운동 전개

정화회의는 17일 통도사에서 “남치·고문·폭력 규탄 및 제2회 정화불사 완수와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전진법회”를 개최했다.

정화회의측 총무원장 직무대행 도연스님은 이날 대회사에서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합법적 평화적으로 중무를 인수받았기 기다렸지만 조계사 총무원측은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중도들을 선동해 교단을 분열해 왔다”며 “총무원측은 불교인의 양심으로 종단대화 불사에 동참하고 총무원장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화회의는 또 대정부 촉구문

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존중, 지난 12일 폭력행위 총무원측 관련자 구속,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승소판결 협박금 수사 촉구, 조계사와 총무원내 각종 폭력 위험물 압수추구 등을 요구했다.

정화회의는 이날부터 “폭력종식과 10.12 폭력 납치 고문사건 수사 촉구 1백만명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화회의측의 이날 법회는 오전의 통도사 1354주년 개산대제와 오후의 문화행사 중간에 치뤄졌다. 정화회의측 스님 2백여명과 개산대제 참석 신도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부산=천미희 기자

전국강원 학인대회 26~27일 법주사서

조계종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덕암)은 제10차 학인대회를 26~27일 법주사에서 개최한다. 450여명이 참가하는 학인대회는 학술(세미나 및 역량대회) 문화(어산, 법배, 꽃꽂이 서도, 연극 등) 및 체육(축구, 탁구, 장기자랑 등)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김재경 기자

호남·제주 주지연수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1~22일 삼성생명 김재연수원에서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를 개최하고, 29~30일 제주 관음사포교당에서 제주지역 주지 연수를 실시한다. 호남지역 연수에는 금산사 백암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본말사 주지스님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만평

737-8881

제2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새 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여래의 사자되어 전법에 신명을 다해 정진하고 있는 어린이 지도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부터 교육 및 불교의 전파와 대응은 우리의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어린이 포교야말로 불교계의 대인이라는 인식 하에 「새 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라는 주제로 제 2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는 21세기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근본 과제로 하여 어린이법회 운영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우조류 부류 동참하시어 해안을 넓히시고, 어린이 포교를 위한 대화와 토론 등으로 이번 연수회가 어린이포교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43년 10월 맑은 날

주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연수회 안내

- 연 제 : 불기 2543년(1999년) 11월 27일(토) 오후 6시~28일(일) 오후 1시
- 어 디 서 : 서울 올림픽파크텔(올림픽공원 내)
- 참가대상 : 어린이지도자 및 포교에 관심있는 분 모두
- 동 찰 금 : 5만 5천원 (1박 3식, 기념품, 연수회 자료집, 만들기 재료 일체 준비 - 미리 접수시 : 5만 2천원/ 군중생, 도서벽지지도자 3만원)
- 신청방법 :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접수도 가능(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 보내실 곳 : 우체국 601310-0037877-11 / 예금주 : 대불어
- 신청기간 : 10월 25일(월)~11월 20일(토)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분반수업사-강의 6(가위, 풀, 칼, 본드)
- 접수·문의 : 본회 사무국 ☎ (051)808-4569, 4570 (FAX 808-4571) PC천리안 : GO BOSAL(운영자 수신 편지 이용) E-Mail : Youngoc@thrunet.com/ZSBOSAL1@chollian.net

주요강의내용

주요 강의 내용	강 사	비 고	
어린이포교에 대한 종단의 정책과 방향	대 한 불 교 조계종포교원		
경전 상에 나타난 어린이 교화	정 병 조	동국대 교수	
이야기가 있는 노래마당(국악강의)	김 정 민	방송연예인, 서울국악예고 강사	
사찰 속 더불어 살을 위한 어린이법회 운영 (어린이법회의 새로운 방향 및 프로그램 제안)	조 경 욱	조계사어린이회 지도교사	
우리들이 부르는 찬불가	정 유 탁	풍경소리	
분 반 수업	우리들이 만드는 세상 (미술활동 / 전통놀이감 만들기)	노 수 산	아동미술전문가, 나무미술학원 원장
	신나는 가락으로 입모아 마음모아 (노래를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최 홍	한국방송기전문예술원 이비트 실장
사찰예절과 예법	덕 진 스님	회경스님	
21세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교육과 불교	김 중 서	전 덕성여대 총장 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총재/정관 부총재/혜총, 철오 회장/덕진 상임부회장/정여 부회장/윤성, 원혜, 영조, 해관, 무등, 심산, 성형, 인성 감사/지광, 박창식

주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

지역문의처 ■ 서울·경기 (02)433-1506/유지선 사무국장 ■ 부산 (051)853-5486/이선경 총무처장 ■ 대구·경북 016-505-3143/김형중 사무국장 ■ 광주 011-719-5550/정수보 사무국장 ■ 대전 042/433-1141/류재희 사무국장 ■ 경남 (0551)242-0108/천영숙 사무국장 ■ 제주 016-691-4728/김봉현 사무국장